

## 추석 이웃사랑 온정 물결

금호고속·금호터미널 복지관에 선물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사장 김성선) 직원들은 지난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쌍촌종합복지관 등을 찾아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 광주시여성발전센터 인화원에 위문품



광주시여성발전센터(소장 최연주)는 추석을 맞아 지난 25일 광주인화원과 행복재활원 등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위문공연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전남개발공사 복지시설 위문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사회복지시설 '신안노인전문요양원', '나주 계산원'(장애인시설), '화순 자애원'(아동시설) 등을 방문, 위문활동을 펼쳤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 보해 사랑나누미 봉사단 농촌 봉사



'보해 깊은잎새 사랑나누미 봉사단' 20여명은 지난 26일 무안군 운남면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해양조 직원 및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한 뒤 광주·전남·북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옛 유물 통해 어린이들에 상상력·창의력 길러줘요”

“아이고 형수님, 오른쪽 뺨을 때리셨으면 왼쪽 뺨마저 주걱으로 때리셔야죠.”라고 흥부가 말했어요. 오른쪽 뺨을 맞은 흥부가 뺨에 밥알이 붙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16일 오후 2시께 ‘어쳐구니 상상 교실’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동화구연 강사 심은경씨가 어린이들에게 ‘흥부와 놀부’ 얘기를 들려준다. 어린이들에게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 흥부전을 들려준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10분간의 동화구연이 끝나고 박 강사가 어린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주걱은 밥을 풀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릴 때도 사용된다’는 거 알고 있었던 사람 손 들 어봐요.” 어린이 30여명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끈 다음 어린이들은 유물 설명을 담당하는 박학진씨에게 선조들이 쓰던 놋그릇과 주걱 등의 이름과 쓰임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붉은 테이블 위에 과거 우리 조상이 쓴 놋그릇과 사기 그릇, 나무 주걱 20여점이 놓였다. 의자에 앉아 설명을 듣던 어린이들이 일제히 ‘와’ 하며 교실 가운데 테이블로 모여들어 만자작거리기 시작했다.

북구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참가한 이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은 전래문화를 듣고 우리 선조가 쓴 옛 그릇을 만져볼 뿐만 아니라 유물 공부도 함께했다. 옛 사람들은 같은 놋그릇이라더라도 남자가 쓰는 것은 ‘주발’, 여자가 쓰는 것은 ‘비리’라고 불렀다는 다소 어려운 내용의 사실도 접하고, 각각의 모양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또 흥부가 밥을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 뺨을 내놓았는데 이야기를 듣고서 한 둘의 밥알도 소중하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됐다.

김지창(9)군은 “조금씩 밥을 남기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라도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야겠다”며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관계자는 “어쳐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말한다. 흔히 우리가 ‘어쳐구니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는 어쳐구니의 소중함을 빛내어 쓰는 말”이라며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주거나 놋그릇 등의 유물을 끄집어낸 뒤 쓰임새 등을 어린이의 시선에 말하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돋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어쳐구니 상상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놋그릇 등 선조들이 사용했던 그릇과 주걱 등을 보고 있다.

/위저랑기자 jrwi@kwangju.co.kr

어쳐구니 상상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오는 11월 11일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은 송편, 바가지, 채소 등의 이

야기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어낸 뒤 송편을 빚거나 바가지를 그리는 등 체험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20년째 이웃사랑 혼신  
강진 방복신 할머니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년째 이웃과 지역사회에 혼신봉사하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토동마을 방복신(81) 할머니.

방복신은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청년동 대한노인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노인의 날 행사에서 영예의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27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난 4남 2녀를 키운 방복신은 20년 전부터 매년 5월 어버이날과 10월 노인의 날에 꾸준히 주위 주민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어 왔다.

방복신은 성장한 자녀들과 함께 강진 교육발전을 위해 3천500만원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하고 마을회관 신축부지 300평을 헌신하는가 하면 마을입구 표석을 기증하기도 했다.

특히 마을의 대소사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지난 1999년부터는 마을 경로당에서 매일 식사봉사를 해오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장애 청소년에 꿈·도전정신 일깨운 산행

## 박영석 대장 무등산서 ‘희망찾기 등반대회’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47) 대장이 27일 무등산에서 장애 청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찾기 등반대회’를 가졌다.

박영석세계탐험협회는 이날 광주 지역 장애 청소년 16명을 초청해 운동 중~문賓정사~무당골~바람재~토끼등 구간에서 산행을 함께하며 꿈과 희망, 도전정신을 불어넣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9시 운동 중에서 열린 개회식과 산행에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최경주 광주시신안연맹 회장,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산악인과 시민 8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등반에 참여한 시민들은 3만 원씩의 참가비를 ‘소외계층 돋기 성금’으로 냄고 박 대장과 협회측은 산행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낸 2천여만 원의 성금을 참가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박 대장은 이날 참가 학생들의 손을 꼭잡고 산길을 안내하며 자신의 고난 극복기를 들려줬다. 광주시신안연맹 산악구조대와 박영석세계탐험협회, 노스페이스 회원들이 장애



27일 무등산에서 ‘희망찾기 등반대회’를 연 박영석(앞줄 가운데) 대장이 장애 학생들의 손을 꼭잡고 광주시 동구 운동중 중심사 입구 길을 오르고 있다.

학생들의 산행을 거들었다.

난청으로 최근 인공외수술을 받은 임현진(13·광주목련초6)양은 “비가 내려 미끄럼과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산길을 걸으니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석 대장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소외계층을 돋기 위한 등반대회를 열어왔으며 지방 행사는 산악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날 행사는 노스페이스 회원들에게 꿈과 희망 찾기 티셔츠와 모자, 스카프 등을 제공했다.

/정현식기자 who@kwangju.co.kr

## 사진기자협회장 손용석 차장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지난 25일 서울포레스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신문, 통신사 사진기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차 정기총회를 갖고 39대 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한국일보 손용석 차장(사진)을 선출했다. 2년 임기의 손 신임회장은 1990년 한국일보 사진부에 입사해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로 재직 중이다.

## 광주시장 표창장 받아



정철호남대 흥보부부(우리 땅, 독도수호 특별전)을 개최해 읊지연습기간 중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킨 공로로 박광태 광주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 ‘좋은세상 포럼’ 창립총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포럼(좋은세상 포럼)이 최근 광주시 광산구 첨단 테크노파크 12층 대연회장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주용, 박종자 공동대표 등 일원진을 선출하고 김규환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수석부의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227-4000.

▲이감단씨 별세 김혁(금호사우나 대표)씨 모친상=발인 28일(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김재옥씨 별세 구남·정숙·정임·정아·정미·주연씨 부친상=발인 28일(월) 조선대병원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구공암씨 별세 이천현·옥현·동순·남숙·민선씨 모친상=발인 28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귀례씨 별세 조영달·영군·영민·영희씨 모친상=발인 28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템플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동창·동문회

4일(개회식 3일 오전 9시30분) KT &G 광주제조창 운동장.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236.

▲광주동구경강기장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gidongfc.familynet.or.kr/>)

▲만성질환관리·영양·우울증 및 스트레스·음주관리·흡연과 금연 강의=12월31일까지.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관리 등 록환자. 두암보건진소 2층 보건교육실. 062-410-8195.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호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YWCA ‘저탄소 녹색성장’ 지도자 양성 과정’ 참가자 모집=29일(화)까지 모집. 일시(10월5일~9일), 광주시 북구 유동 광주YWCA 6층 강당. 문의 062-524-3511.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 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에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 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담양거주자이며서

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동구 전문봉사단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생활속의 침술·침·부황, 30일까지 교육 후 봉사 가능한 동구청 보건소건물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험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의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 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교수 강의 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웃골프장. 010-4604-4608.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원불교 문화센터 3기 회원 모집(9월 1일 개강)=서예(월, 수 오

전 10시), 요가(월, 수 오전 10시), 다도(복 오후 2시), 독서논술지도(목, 오전 10시 30분), 노래교실(화 오후 2시), 규방공예(화 오전 10시), 수심걸 강의(수 저녁 7시 30분)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 부모

▲이길영씨 별세 행근·정란·정희·지혜씨 부친상=발인 29일(화) 무등장례식장 201